

한가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고강도 추진

930개 업체 107억원...목포고용청 기동반 투입 집중 지도 업체 5000만원 용자 지원도...악성 업주는 사법처리 방침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민중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강도높은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서기로 해 지역 근로자들의 따뜻한 명절 맞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정영상)에 따르면 14일부터 2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이 기간동안 근로감독관들도 비상근무 체제(평일 오전 9시~밤 9시, 휴일 오전 9

시부터~오후 4시 근무)로 전환하고, 체불 임금 상담, 제보(익명 포함) 등을 접수·상담한다.

특히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시엔 '체불 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투입되며,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한다.

또한 재산은닉, 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청산은 물론 근로자 생계보호 등을 적극 돕기로 했다.

우선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용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저리의 생계비 대출 등을 지원한다.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체당금 지급' 제도 등을 활용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 청산을 적극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 취약 사업장'을 선별 방문해 현장지도하기로 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악성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에서는 9월 현재 930개 업체 2866명이 임금 107억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지난 11일 열린 목포시사편찬위원회 2차 회의.

18년만에 목포市史 발간한다

개항기부터 2014년까지 집대성... 2017년 12월 완료

목포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민 삶 전 분야의 역사를 집대성한 '목포시사(市史)'가 발간된다.

이번 시사 발간에는 지난해 5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 15명과 편집위원 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시사 편찬은 1897년 목포개항 이후 1914년 일본인에 의해 발행된 '목포지(木浦誌)'와 1930년 '목포부사(木浦府史)'에 이어 1997년 '목포시사' 발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 집대성으로 의미가 크다.

개항기부터 2014년까지 목포의 역사와 문화, 도시 발전과 변천사 등을 담게 될 이번 시사는 철저한 지역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오

는 2017년 12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시사 편찬은 ▲목포의 미래 만들기 위한 자료 구축 ▲지역 문화 고양과 시민들 자부심 고취 ▲목포시 형성·발전 과정,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 등 종합적 안내 ▲지역발전의 전망과 미래 비전 제시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고석규(전 목포대 총장)상임위원은 지난 11일 열린 시사편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포시사편찬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1권 '항도목포'는 항구 목포, 자연환경, 역사, 문화유산을 다루고 2권 '에항 목포' 편에는 문화예술, 관광·체육, 민속, 종교,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다. 3권 '일등 목포'에는 인문환경,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사회복지·의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4권 '터전 목포'편에선 권역별·주제별 마을 이야기를 주민들과의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통한 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 특화시킨다.

5권 자료집에는 각종 통계연보, 자료 사진, 역사 자료 등 생생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총 5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목포시사'는 지자체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해 인구 24만 목포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포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정체성을 정립해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앞으로 지역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사는 책자 1000질, 단행본 5000부, DVD, 전자책(e-book)의 형태로 기록 보존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남 시·군의회의장 회의...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 채택



제205차 전남 시·군의회의장회 회의가 조성으로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남 16개 시·군의회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목포 상그리아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회는 밥상용 쌀 수입을 축적하는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성오 의장은 "전남 시·군의회의장회가 상호 간의 협력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내년 준공을 앞둔 목포 대양산단 분양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내년 정부예산안 2293억원 반영

신규사업 9건 103억 포함

목포시 현안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사업 9건(103억) 등 총 49건 2293억원이 반영됐다.

목포시는 13일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방침에도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 관계부처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 사업들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서해권 해상종합비상훈련장 조성',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 사업', '호남고속철 건설(송정~목포)' 등은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대양산단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서해권 해상종합비상훈련장은 남해 배후부지에 지하 1층을 포함한 3층 건물(연면적 6030㎡) 규모로 사업비 124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2017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사업 역시 계속공사비 250억원이 편성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신규 사업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80억원), 남해안취체거사업(5억원),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5억원), 서해권 해상 종합 비상훈련장 조성(5억원), 율도 및 달리도 도로개발사업(2억원), 유아 숲 체험원 조성(1억원) 등 9건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앞으로 박지원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해양대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 표창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최민선)가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제1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혁신분야 대항, 연구기관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양대학교는 해양산업특성화 대학으로, 지난 1997년 산하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최근 3년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을 통한 17개의 해양특성 과제를 수행하고, 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219개의 가족 회사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



왼쪽부터 박래성(주)이레쓰 대표, 최민선 목포해양대 총장, 신은수 목포해양대 학군단(3학년) 학생.

결, 산학협력 활성화와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민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관련 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5년연속 대통령상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종호)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최근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2015년 제41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제41회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는 국내 공기업과 두산중공업(주) 등 총 294개팀이 참가했으며, 영산강사업단은 '용·

배수로 시설물 구조개선으로 시공부적합수 감소'를 주제로 한 정정분임조가 출전했다.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해 총 10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품질분야 개선에 주력해 오고 있다. 박종호 단장은 "오는 10월 창원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품질경진대회에 참가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품질에 관한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감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속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펌프장, 배수장, 양민장, 배수갑문, 양수장, 저수지, 골프장, 상하수도

특장점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DJM 물관리자동화
 daeyoung (062) 670-0300